

# ‘전북교육수련원’ 중앙투자심사 통과

### 전주세내유치원도 승인... 전주혁신도시 2중·전주봉암중은 재검토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제 16대 교육감 시절부터 공약사업으로 추진했던 (가칭)전북도교육수련원(이하 ‘교육수련원’)이 지난 11일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2012년 교육수련원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과 전북도의회 의결을 거쳐 2014년 2015년 2017년 세 차례에 걸쳐 투자심사를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교육수련원 설립의 타당성과 규모 문제로 교육부로부터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교육수련원은 3만여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각종 세미나

와 워크숍 등 교육활동을 지원해 교육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기 때문에 반드시 설립한다는 의지를 갖고 김승환 교육감 3기 시작과 함께 2018년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재요청했으며, 그 결과 교육부에서 교육수련원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번에 승인을 최종 통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수련원 설립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도내 3만여 교직원의 숙원사업인 워크숍 및 세미나 전용시설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며, 교직원들은 물론 지역의 중추적인 교육문화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교육수련원은 올해 도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얻게 되면 내년에 부지 매입과 실시 설계를 거쳐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편 지난 6일 개최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전주혁신도시개발구역 내 가칭 전주세내유치원 설립계획은 승인(적정)을,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혁신도시2중학교와 전주에코시티 내 전주봉암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통보받았다.

도교육청은 전주세내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으로 전주시내 유아교육 여

건 개선 및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전북혁신도시 내 전주혁신도시2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학생배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고, 전주에코시티 내 전주봉암중학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학교 설립 시기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도교육청에서는 재검토 통보를 받은 혁신도시2중학교와 전주봉암중학교는 인근학교 분산배치가 불가능하고, 통학불편 및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서는 적기 학교신설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추후 실시되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친환경 명품돈육 '두지포크'가 서울시청에서 진행되는 '추석맞이 시청매점 추천상품전'에 참여하고 있다.

## ‘두지포크’ 서울시 추천상품전 참여

### 전북대 산학협력 성과 명품 돈육, 서울시 선봬

전북대학교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이 농생명 공학 연구 결과로 탄생시킨 프로바이오틱스 친환경 명품돈육 '두지포크'가 지난 11일부터 19일까지 서울시청에서 진행하는 '추석맞이 시청매점 추천상품전'에 참여한다.

판매상품은 돼지고기 요리의 주요 부위인 오겹살, 목살, 앞다리살의 세트 상품이며, 종량에 맞게 2~4만 원대로 폭넓은 가격으로 구성되어 있어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행사를 통해 주문된 상품은 전북 완주에 위치한 두지팜에서 직접 기른 돼지를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포장된 상태로 우편배송 받을 수 있다. 두지포크가 이번 서울시청의 추석 상품전에 참가한 것은 지역거점대학과 지역이 협력해 만든 외식 브랜드를 서울에서 공식적으로 선보이는 첫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두지포크는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의 농·생명공학 연구결과로 탄생한 지역축산 브랜드이며, '프로바이오틱스'를 먹고 자란 친환경 동물복지형 돼지고기다.

유용미생물을 먹여 생산한 두지포크의 돼지고기를 분석한 결과, 일반 돼지고기에 비해 0% 부드러우며 오메가3, 비타민C 등 인체에 필요한 영양분이 다량 함유된 것이 증명됐다.

또한 유용미생물을 돼지에게 급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돼지가 생활하고 있는 농장 곳곳에 활용함으로써 축사 악취가 크게 절감되고, 이에 따라 돼지의 면역력이 극대화되어 구제역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두지포크는 공식 홈페이지(<http://duzifork.com/>)와 전주 객리단길에 위치한 수제 돼지고기 요리 전문점 '은리앤즈'에서 판매중이며, 수익의 일부를 지역 농축산브랜드 육성, 청년 취·창업 지원, 전북대 장학금 기탁 등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있다. 전북대 동물분자유전육종사업단 이학교 단장은 "산학협력의 연구성과인 두지포크가 이번 서울시청에서 주관하는 추석맞이 상품전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을 넘어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에 연구자로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 전북대, 우크라이나 교육 관계자 초청 연수 실시

### 교육 교류 가교... 한국문화 확산, 유학생 유치 기여

전북대학교(총장 이남호)가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우크라이나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 나라 교육 관계자들을 대학에 초청, 한국방문 연수사업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전북대는 국제협력부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을 중심으로 주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과 긴밀한 교류를 지속해오고 있으며, 지난 5월엔 공대 연구진이 우크라이나 주요 대학을 방문해 교육과 연구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교류 보폭을 넓혀가고 있다.

전북대 지역선도대학육성사업단은 교류 활성화를 위해 주 우크라이나 한국교육원과 함께 지난 8일부터 우크라이나 초·중등 및 대학 교육 관계자들을 초청해 다채로운 교육과 체험 등이 섞인 한국방문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 연수는 우크라이나 교육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를 소개하고, 우수한 교육여건을 홍보해 교육 교류 확산을 위한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교육부 교육과학부 국제협력 및 유럽통합 전문관, 키예프 공대 국제협력대외경제부장, 키예프 외대 한국학과 교수, 김나지아 그레이스학교 교장 등 다양한 교육 관계자들로 이뤄진 연수단은 9일 전주를 찾아 전주 한옥마을과 전라북도교육청, 전북대, 전북대사대부고, 전주중앙초등학교 등을 차례로 방문해 한국의 교육과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연수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 내에 한국어반 설치 등 한국어교육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여 한국문화 확산과 유학생 유치 등에도 크게



전북대학교가 최근 정부의 신북방정책에 발맞춰 우크라이나와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 이 나라 교육 관계자들을 대학에 초청, 한국방문 연수사업을 실시했다.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남호 총장은 "번 곳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해주신 것에 매우 감사

하다"며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더욱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 도교육청, 대입 수시 대면상담 만족도 높아

### 올해 662건 상담

### 매우 만족·만족 92%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대입 수시 대면상담'을 운영한 결과 상담 건수가 66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대입 수시전형에 앞두고 맞춤형 진학상담을 통해 대입 정보를 제공하는 대면상담은 지난 8월 31일부터 9월 7일까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 지역에서 학부모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상담실 운영을 위해 전북대입진학지원단 소속 학교 현장 교사 40여명을 운반제로 배치했다. 상담 수요가 많은 전주시의 경우 완산구(도교육청)와 덕진구(전북교육문화회관)로 분리해서 상담을 진행해 내담자들의 접근이 보다 용이하도록 배려했다. 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교육청에서도 상담실을 운영해

입시정보소외지역 학생 및 학부모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특히 야간(평일 오후 3시~밤 10시) 및 주말(오전 9시~오후 6시) 상담 운영을 통해 학생과 직장에 다니는 학부모들의 참여율을 높였다.

대면상담을 받은 학생과 학부모의 만족도는 92%로 상담 내용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 251명의 응답자 중 매우 만족은 53.8%(135명), 만족은 38.2%(96명) 등 만

족 이상이 92%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성적 분석을 통해 대입 결정에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지원 가능 대학에 대한 안내와 친절한 상담에 감사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도 관계자는 "그간 전북도교육청은 진학지도와 관련해 지속적인 교사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했으며 단위 학교로 찾아가는 입시설명회, 교육과정 및 학생부 기록 컨설팅, 정보 소외 지역을 위한 찾아가는 작은 입시설명회와 상담 등의 활동을 펼쳐왔고 이에 대한 학부모들의 신뢰가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장수교육지원청, 공직자 청렴 교육 실시

전북도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정동일)은 12일 교육 공직자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2일 오후 3시 장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교육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교감 및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 전문강사를 초빙해 '청렴리더십과 청렴공직문화'

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강의를 통해 청렴 문화 확산에 공무원들이 솔선수범 해줄 것을 강조했다. 장수교육지원청 정동일 교육장은 "지속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솔선수범하는 청렴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